

동구, 세계축제도시 지정...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

세계축제협회 연차총회서 발표
2~6일 21회 충장축제 개최 박차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대동축제

광주 동구가 최근 세계축제협회(IFEA)로부터 ‘세계축제도시’로 지정 받았다. 동구는 이를 발판 삼아 오는 10월2일 개막하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운영해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광주 동구는 29일 세계축제협회가 주최한 제67회 IFEA 연차총회 및 2024 피나클 어워드에서 ‘세계축제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1956년 설립된 세계축제협회는 미국을 비롯한 50개국 3000여명의 정회원과 5만여명의 준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

계의 축제 및 이벤트 전문가를 지원 활성화하는 기구다.

동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0월 2~6일까지 금남로와 충장로,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충장축제를 시민들이 만들고 즐기는 대동(大同) 축제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충장축제 주 무대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 마련한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감성과 재미 가득한 프로그램을 ‘원 데이 원 빅 이벤트(1-Day 1-Big Event)’도 선보인다.

축제 첫날인 2일 선보이는 원 빅 이벤트(1-Big Event)는 개막기념식 ‘추억의 불꽃’이다. 이날 오후 7시부터 금남로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이 기억하는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들을 하나로 모아 축제 공간을 물들일 예정이다.

개막 행사로 퓨전 엠씨(Fusion MC), 하모니이즈의 공연이 펼쳐지며, 자전거탄 풍경, 드림노트, SG워너비 김진호, 터보 등 시대를 풍미한 가수들의 무대와 국내외 파이어 퍼포머들이 펼치는 파이어쇼, 피날레를 장식할 화려한 레이져쇼까지 준비돼 있다.

이튿날인 3일 오후 7시부터 금남로 메인무대에서 광주은행과 함께 여는 추억 감성 콘서트에는 나윤권, EXID 솔지, 김나영이 출연해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음악을 선사한다.

셋째 날 하이лай트는 불금 ‘발광’ 나이트다. 오후 7시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현직 DJ들과 함께 나이트, 힙합, 테크노 등 다채로운 파티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축제 4일 차인 5일에는 충장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충장 파이어아트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퍼레이드는 오후 6~9시까지 총 3부로 나눠 화려한 불꽃과 모뉴먼트, 주민들의 관심과 손길이 담긴 행렬과 함께 벅찬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충장축제의 마지막 날인 6일 폐막 기념식 ‘우리 가슴의 불꽃’은 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들과 함께했던 감동과 추억을 하나로 모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퍼포먼스와 공연을 선보인다.

폐막식에서는 충장 파이어아트 퍼레이드의 시상식도 진행된다. 경쟁을 넘어 열정과 창의성을 기리는 자리로 축제의 예술적, 대동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순간이 될 것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국내에선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고 해외에선 아시아축제도시로 물론 세계축제도시로 지정됐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충장축제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우수 프로그램 부문 복지부 장관상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광주 광산구는 치매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 노력과 성과로 ‘치매 우수 프로그램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산구 치매안심센터는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 초과자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 확대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 헤아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치매 예방과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5일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상철 기자

‘군분로 야시장’ 반짝반짝 남구, 11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 남구가 무등시장 주변 군분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야시장을 개최한다.

남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대표 관광지인 양림동부터 광주 랜드마크인 백운광장 일대와 군분로로 이어지는 코스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은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열린다.

매주 토요일 오후 5~10시까지 문을 여는데, 야시장이 서는 구간은 무등시장 입구에서부터 월산동 신우신협 본점까지 1.1km에 달한다.

이곳에서는 무등시장과 군분로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및 푸드트럭에서 다채로운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야시장 곳곳에 마련한 체험 공간에서는 다양한 놀이를 만날 수 있다.

먼저 야시장 첫 출발을 알리는 10월 5일과 두 번째 야시장이 열리는 10월 12일에는 흥을 돋우는 공연 및 무대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선보이는 공연을 비롯해 트럼펫 연주가 이승훈 씨의 무대, 거리공연, 탕후루 춤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야시장이 펼쳐지는 행사장에서는 구간별 3곳으로 나눠 먹거리 부스가 들어선다. 푸드트럭을 포함해 길거리 점포 39곳이 문을 열며, 다양한 음식을 포장해 판매한다.

이밖에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 무등시장 앞 왕복 4차선 1.1km 도로 구간은 교통통제가 이뤄지며,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8개 이면도로를 통해 우회 운행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자원회수시설 ‘주민 설명회’ 성료 광산구, 권역별·동별 실시

광주 광산구는 시민에게 광역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권역별·동별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7월 말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지난 8월26일부터 전체 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진행하며 광주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건강한 공론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송정권, 수원권으로 나눠 연 권역별 설명회 400여명, 지난 25일을 마지막으로 완료된 찾아가는 설명회 805명 등 권역별·동별 설명회를 통틀어 1200여명이 참여해 자원회수시설 건립 필요성, 광주시 사업 계획 등을 청취했다. △자원회수시설 악취 문제 △출입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주민 편의 시설 설치 계획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법 등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광산구는 주민 설명회와 더불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인식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29일까지 하남유니온파크,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타지역 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공직자, 관계기관 직원 등 176명을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 바로 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박병규광산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필수 시설인 만큼 관련된 많은 시민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설적이고 건강한 토론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타지역 견학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서구는 오는 11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6곳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건강캠프’를 운영한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하반기 찾아가는 건강캠프 운영

건강증진 서비스 통합 제공

광주 서구가 지난 27일 서범마루시니어센터로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캠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구는 광주보건대학교 4개 학과, 보라안과병원, 서구약사회 등과 함께 11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6곳을 순회하며

△안과검진과 시력측정 △정신건강(우울증, 스트레스)검사 및 치매검사 △혈압·혈당 기초검사 △한방치료 △물리치료 △결핵검진 등 다양한 기초 건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한다.

또 약물 폐기 처리 방법,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안과검진·정신건강검사·치매검사의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건강한 생활 실천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민·관·학 연계를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건강캠프 두 번째 일정은 다음달 11일 농성맞이여유채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정상아 기자

북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유공기관 표창 수상

광주·전남 유일...맞춤형 정책 호평

광주 북구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콘퍼런스에 서 광주·전남 유일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법정조사로 북구는 매년 질병관리청,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된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토대로 주민 건강증진에 헌신한 9개 유공기관에 수여됐다.

북구는 이번 유공 기관 표창 심의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 등을 통해 202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내실 있게 수행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을 시행했다고 평가받았다.

윤준명 기자